

‘파죽지세’ KIA, 원정서 연승가도 달린다



20~22일 kt·23~25일 삼성과 6연전
22승 22패 리그 4위...투·타 상승 기대

상승세에 접어든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연승가도를 이어간다.

KIA는 지난주 주중 롯데자이언츠에 위닝시리즈를 달성한 뒤 주말 두산베어스를 상대로 스윙승을 따냈다. 그 결과 22승 22패 승률 0.500를 기록, 순위는 공동 4위까지 상승했다.

현재 KBO리그 상위권을 제외한 중·하위권 팀들은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

리그 1위 LG트윈스는 2위 롯데·3위 한화와 2.0게임차를 유지하고 있다. SSG랜더스와 공동 4위에 자리한 KIA는 6위 NC다이노스와는 단 0.5게임차다. 이어 7위 kt위즈(1.0게임차), 8위 삼성라이온즈(2.0게임차), 9위 두산(3.0게임차)와도 간극이 좁다.

이번 주 어떤 성적을 작성하느냐에 따라 순위 판도는 요동칠 예정이다. KIA의 경우 kt·삼성과 치르는 만큼 좋은 경기 결과를 얻는다. 면상위권과의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순위를 굳건히 할 수 있다.

현재 KIA의 타선 분위기는 좋다.

지난주 경기 기간 타율 4위(0.271), 출루율 공동 3위(0.351), OPS(출루율+장타율)도 0.743으로 4위에 올랐다.

먼저 ‘해결사’ 최형우가 가장 좋은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주 6경기에서 19타수 10안타 1홈런 6타점 타율 0.526을 기록하며 팀 타선을 이끌고 있다.

‘슈퍼스타’ 김도영도 6경기 23타수 7안타 1홈런 5타점 타율 0.304로 상승세에 있다. 박찬호 또한 5경기 19타수 6안타 2도루 4득점 타율 0.316으로 활약 중이다.

마운드 역시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양현종이 지난 17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6이닝 6피안타 7탈삼진 1실점 평균자책점 1.50으로 패투했다. 김도현 또한 지난주 2경기에서 11.1이닝을 소화하며 평균자책점 2.38로 호투를 펼쳤다.

야세로 좁혔던 불펜 또한 지난주 경기 기간 평균자책점 3.05로 리그 4위의 활약을 선보였다.

특히 ‘수호신’ 정해영은 지난 17일 경기에서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세이브 기록을 썼다.

그는 두산과의 더블헤더 1차전 9회말 5-2로 앞선 상황에서 구원 등판, 세 타자를 깔끔히 돌려세우며 세이브를 추가했다. 이어 더블헤더 2차전에서도 세이브를 추가한 정해영은 이로써 통산 134세이브를 달성

선동열의 132세이브 기록을 넘어서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세이브 기록 보유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위권에 머물렀던 투·타 모두 회복세를 보이면서 순위 또한 상승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번 상황에서 KIA는 주중 경기를 kt와 치르게 된다.

kt는 현재 21승 3무 23패 승률 0.477로 리그 7위에 위치했다. 평균자책점은 3.48로 KIA(4.50)를 웃돌고 있다. 다만 타율 7위(0.244), 출루율 7위(0.328), OPS 8위(0.679) 등으로 타격 지표는 KIA를 밑돌고 있다.

수원 kt위즈파크에서 만난 kt는 조이현을 19일 선발로 내보낸다. 이에 KIA는 윤영철을 선발로 투입한다.

kt와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대구에서 삼성을 상대한다.

KIA가 이번 원정 6연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상위권에 추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신한 Bank KBO리그 중간 순위 (19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LG	46	30	16	0	0.652	0
2	롯데	48	28	18	2	0.609	2
2	한화	46	28	18	0	0.609	2
4	KIA	44	22	22	0	0.500	7
4	SSG	45	22	22	1	0.500	7
6	NC	42	20	21	1	0.488	7.5
7	KT	47	21	23	3	0.477	8
8	삼성	47	21	25	1	0.457	9
9	두산	46	19	25	2	0.432	10
10	키움	49	14	35	0	0.286	17.5

광주일고 김성준, MLB 텍사스 입단...“최고의 선수될 것”

계약금 130만 달러...오타니와 같은 투·타 겸업 ‘이도류’
구단 “월드클래스의 재능·인성 갖춰...1년간 준비에 집중”

‘제2의 오타니’를 꿈꾸는 광주일고 투수 겸 내야수 김성준(3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했다.

텍사스 구단은 19일(한국시간) 김성준을 국제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장초, 중장중 베이스볼클럽(총장BC)를 거쳐 광주일고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성준은 고교 야구 최고의 기대주다. 중학교 시절부터 투·타를 겸업했던 그는 153km의 강속구와 함께 뛰어난 타격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투수로는 14경기 3승 1패 평균자책점 2.65를 찍고, 타자로는 28경기 타율 0.307 1홈런 8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31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스카우터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는 올 시즌 더욱 기량이 좋아져 2026 KBO 신인드래프트 최다어로 꼽혔다.

그러나 김성준의 선택은 KBO리그가 아닌 메이저리그였다. 그가 텍사스행을 선택한 결정적인 계기는 자신의 ‘이도류’ 활동이 가능해서다.

투·타 모두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김성준의 롤모델은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다. 텍사스는 김성준에게 투타 활동이 모두 가능하다고 전했고, 관련 프로그램까지 짜주며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김성준 영입에 앞장선 해밀턴 와이스 텍사스 국제 스카우터 이사는 “월드 클래스

의 재능을 가진 선수이자, 인성까지 훌륭한 야수 유망주 수비와 타격에서도 큰 인상을 받았고, 마운드에서 퍼포먼스 역시 뛰었다”면서 “구단은 그를 투타 겸업 선수로 육성할 확고한 계획을 가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성준이 도전에 필요한 자질을 갖췄다고 믿는다. 중요한 건 우리 구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닌 선수라는 점이다. 그는 세계적인 선수



로 성장할 재능을 지녔고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최근 KBO리그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고교 졸업 이후 MLB 구단에 직행하는 것보다 KBO리그를 거친 뒤 빅리그에 도전하는 선수가 늘어난다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김성준은 “빨리 메이저리그에 올라가고 싶었다”면서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 빨리 성장한다면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텍사스와 계약을 결정했다”고 입단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텍사스 구단은 김성준이 현재는 타자보다는 투수 쪽 재능을 더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MLB닷컴은 “강력한 패스트볼과 두 가지 수준급 변화구, 헛스윙을 유도할 스피리터를 던진다”고 소개했다.

김성준이 투타 겸업을 준비하려면 다른 선수보다 두 배 이상 노력을 쏟아야 한다.

와이스 이사는 “음식과 언어, 지도 방식 등 모든 것이 다를 것이다. 우리는 김성준이 성공하도록 훈련을 받을 것이다. 향후 1년은 준비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타 겸업으로 성공하려면 결국 의지가 중요하다. 그들이 해낼 수 있을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느냐가 중요하다. 김성준은 이러한 결정의 무게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선수이며, 적응 과정을 이겨내면 반드시 재능을 꽃피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성준이 사인한 계약금은 130만 달러(약 18억2000만원)로 알려졌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윤태성, 국가대표 발탁

컴파운드 남자 MQS 기준 통과
권유나, 국가대표 2차 전종목 석권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윤태성이 국가대표에 발탁됐다.

윤태성은 지난 15~18일 부산 강서체육공원 양궁 경기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장애인양궁협회장배 전국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겸 2026년 2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윤태성(CM)은 컴파운드 50m 1라운드 1위, 50m 종합 1위, 혼성 단체 1위, 개인전 3위를 차지하며 컴파운드 남자 부문 국가대표 최소 자격점수(MQS) 678점을 채웠다.

컴파운드 남자 MQS 기준을 통과한 윤태성은 당당히 태극마크를 달고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와 2026 국가대표 및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가한다.

여자부에서는 권유나(CW)가 컴파운드 여자부 문전 종목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권유나는 50m 1라운드 1위, 50m 종합 1위, 혼성 단체 1위, 개인전 1위를 기록하며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권유나도 태극마크가 유력하다.

큰 경기에서 강한 권유나는 윤태성과 호흡을 맞춘 혼성 단체 4강에서 서울팀을 상대로 147-147 동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윤태성(오른쪽)이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점을 기록, 슛오프에서 승리해 결승에 올랐고, 결승전에서도 대전팀과 149-149 동점 끝에 슛오프 접전을 펼치며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다.

권유나가 태극마크를 달고 2025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면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은 이미 출전이 확정된 김욱금, 윤태성과 함께 무더기 금메달에 도전한다.

윤태성은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안행승 감독과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단점을 극복했다”며 “태극마크의 꿈을 이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안행에서 열리는 축제에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U12, 축구 꿈나무 공개 테스트 모집

24일 신월복합운동장서...초 2~4학년

프로축구 광주FC가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공개 테스트를 진행한다.

광주FC는 지역 내 우수 선수 발굴 및 인재 육성을 위해 U12 공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개 테스트는 축구선수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광주 지역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2~4학년(2015~2017년생) 학생이며 기초 테스트와 기본기, 미니 게임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코칭스태프 평가를 통해 U12 엘리트부(육성반)에 영입되며, 우수 선수는 아카데미부(취미반)에 추천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2일 오후 12시까지이며, 구단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와 함께 이메일(wslee@gwangjufc.com)로 접수하면 된다.

공개 테스트 참가 선수에게 개별 연락을 실시할 예정이며, 테스트는 24일 오후 3시에 광주 남구 신월복합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는 축구화, 운동복, 음료 등을 지참해 오후 2시 30분까지 집결하면 된다.

광주FC 관계자는 “엄지성, 정호연, 문민서, 조성근 등 국내외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유스 출신 선수들이 성장해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최고의 유망주를 찾아 점차 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스포츠 요람’ 광주체중, 전국소년체전 활약 다짐

17개 종목 200여명 선수단 참가...금메달 11개 목표

광주체육중학교가 19일 학교 강당에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하고 선전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문종민 광주시체육회 부회장, 김민주 광주시육상연맹 회장,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준재 광주체육중 교장, 출전선수 154명, 지도자 등이 참석했다.

전국 각 학생들이 자웅을 겨루는 이번 소년체전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남 일원에서 열린다.

다. 육상과 수영, 축구, 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씨름, 유도, 검도, 양궁, 배드민턴, 태권도, 롤러 등 총 36개 종목이 펼쳐진다. 12세 이하부와 15세 이하부로 나눠 경기가 진행된다.

광주체중은 17개 종목에 2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11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3개 등 총 31개의 메달을 목표로 한다.

먼저 육상에서는 강요한(3년)이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수아(3년)·권지영(3년)은 조정 더블 스캔에서 금빛 물살을 거른다.

체조 송재연(3년)은 개인종합과 2단 평행봉에서 1위 입상을 노리고, 복싱 -46kg급 이창욱(3년) 또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양궁에서는 강수정(3년)이 양궁 50m와 함께 리커브 60m 혼성에서 김준서(2년) 금빛 시위를 겨냥한다.

레슬링은 그레코로만형 양도열(3년)과 자유형 김수현(3년)·최지원(3년)이 금빛 메치기에 도전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